

뜨락들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 왔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성경을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나,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구적 해석만을 고집한다면 더 이상 성경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구적 해석은 자유와 해방의 복된 소식이 아니라 억압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만약 성경이 사람들에게 생명 대신 억압을 준다면 그것은 ‘생명의 빵’이 아닌 ‘돌판에 새겨진 문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¹

신약성경은 갖가지 자료, 예컨대 이야기, 보고, 편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는 많은 자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것들, 곧 당시에 권위있는 것들이 선별되어 이루어 졌다. 저자는 사도나 제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 저자는 모두 남자이다.²

고린도전서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침묵명령은 교회 구조의 위계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암전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도록 강요되었으며, 여자는 가정에서 길들여지고, 예수가 가져다 준 해방은 남편으로 부터 보다 아은 대접을 받는 것으로 대치되었다.³

4 세기가 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동방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고결한 친구’라 여겼으며, 교부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사도들 중의 사도’로 인정했었다. 중세기 성전 벽화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제를 임명하는 여자’로 그려졌다. 그러나 1970년 카도릭의 ‘성무일과서’가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서방교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관능과 성적인 죄인 원형’으로 이해했다.⁴

그러나 가부장적 흔적을 담은 성경의 번역에서 ‘비비’를 ‘최고의 책임자나 총독’이라는 원어의 번역보다는 ‘여성 조력자’ 또는 ‘교회의 봉사녀’로 번역하고 있고, 그녀의 ‘사도’라는 칭호를 ‘여집사’로 바꾸어 번역했다.⁵

라틴어를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 라’ 대신 ‘아굴라와 브리스가’로 순서를 바꾸어 놓고 있다.⁶

¹ 나현숙, 박경선, 안구선, 이계성, 한금섭 공저, 주역 **옴소이다마는**: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1.

² 나현숙, 박경선, 안구선, 이계성, 한금섭 공저, 주역 **옴소이다마는**: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2.

³ 나현숙, 박경선, 안구선, 이계성, 한금섭 공저, 주역 **옴소이다마는**: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2.

나현숙, 박경선, 안구선, 이계성, 한금섭 공저, 주역 **옴소이다마는**: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2.

⁵ 나현숙, 박경선, 안구선, 이계성, 한금섭 공저, 주역 **옴소이다마는**: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3.

⁶ 나현숙, 박경선, 안구선, 이계성, 한금섭 공저, 주역 **옴소이다마는**: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3.

그런데 ‘섬김’의 행위는 잘못된 해석과 번역에 의해서 본래의 예수의 [섬김]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 예수의 ‘섬김’의 정신을 이어받은 여성들의 섬김은 ‘친절한 보조, 보살핌, 원조’로 번역하여 여성집단의 ‘주부화’를 달성하고 있다. 분명히 섬김은 초대 기독교적 사명인데 예수님의 ‘섬김’과 ‘생명주심(지도적 역할)’을 분리시켜 전자는 여성에게, 후자 곧 지도적 역할은 남성에게 할당했다.⁷

목회서신은 저술 연대상 바울이 직접 쓰지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바울의 신학사상과 그의 기독교적 교훈들을 추종하는 후계자들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⁸

에베소서에서 의하면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위에 세워진다고 한다. 초기 기독교 운동에서 예언자는 현상황을 조명하면서 부활한 주의 대변자로 대단한 권위를 가졌다. 물론 초대 교회의 예언은 남성만의 특권이 아니었다. 바울은 누구든지 예언자적 영감, 하나님께 받은 계시나 영감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경고했으며 누가는 그의 책에서 여성예언자 엘리자벳, 마리아, 안나, 빌립의 네 딸 등을 기록하고 있다.⁹

그러나 이런 기독교적 예언은 감독의 위계질서에 의해 통제된다. 결국 감독의 권위가 예언자의 권위를 대치하게 된다. 감독의 가르치는 권위는 교회의 서열화(위계화)를 위해 수세기 동안 여성의 활동을 통제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4세기 이전까지 자신들의 예언자적 가르침과 권위를 주장했음은 물론이고 당시 감독이나 교황에게 까지 설교했다고 한다. 4세기의 ‘사독적 제정들’은 여성들의 활동과 역할을 확실하게 한정했다. 교회직분도 성별화 되어 여성들을 주변으로 몰아냈거나 배제시켜 여성들을 중요한 교회직분을 맡지 못하게 통제했다.¹⁰

마가복음에서 제시하는 참된 제자는 첫째, 예수의 수난과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자**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이 참된 제자적 수행은 세 단어로 특징화 된다. 막 8:34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려거든’에서 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든 것이다. 따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위험을 무릅쓰며 새로운 가족공동체로 나서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막 10:42-45, 눅 8:23에서 나타나는 ‘**섬기다**’라는 동사이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요, 초고의 가치론이다. 참된 제자, 곧 지도자는 첫째나 으뜸이 되는 것,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개념인 섬김의 실천자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사람이 차된 제자의 모형으로 제시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갈릴이에서 예루살렘 처형장과 무덤까지 그리고 부활한 주를 만난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열두 제자들의 배신이나 도망은 참된 제자적 수행의 실패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결국 마가복음에서 참된 제자적 수행자는 죽음과 고난을 무릅쓰고 실천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처형장과 무덤까지 따라

⁷ 나현숙, 박경선, 안구선, 이계성, 한글섭 공저, 주여 옳소이다마는: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3-134.

⁸ 나현숙, 박경선, 안구선, 이계성, 한글섭 공저, 주여 옳소이다마는: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4.

⁹ 나현숙, 박경선, 안구선, 이계성, 한글섭 공저, 주여 옳소이다마는: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5.

¹⁰ 나현숙, 박경선, 안구선, 이계성, 한글섭 공저, 주여 옳소이다마는: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5-136.

올라가 부활의 주를 만난 여성들이라고 소개한다. 즉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하고 장례를 준비한 향유부는 여인, 예수님의 장사된 장소를 증언하는 여성들, 부활을 증언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곧 참 제자들이라는 것이다.¹¹

영생수, 참 위로와 희망을 갖고 예수님과 토를 (대화)하는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나선 참된 제자중의 한사람이다.¹²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버금하는 고백, 즉 예수님의 생의 목표를 요약하는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고백을 한 베다니의 마르다 역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다. 그녀는 또한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고백한 여성제자이다.¹³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 먼저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녀도 기독교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여성제자이다.¹⁴

¹¹ 나현숙, 박경선, 안구선, 이계성, 한금섭 공저, 주여 옳소이다마는: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7-138.

¹² 나현숙, 박경선, 안구선, 이계성, 한금섭 공저, 주여 옳소이다마는: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9.

¹³ 나현숙, 박경선, 안구선, 이계성, 한금섭 공저, 주여 옳소이다마는: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9.

¹⁴ 나현숙, 박경선, 안구선, 이계성, 한금섭 공저, 주여 옳소이다마는: 변천하는 여성 제자직(서울: 도서출판 예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 1994), 139.